

양상추 국내동향 및 일본 시장현황

□ 국내 양상추 시장동향

- **(재배현황)** 한국의 양상추 생산량 및 수확면적은 증감추세를 반복하며 장기적으로 하락함
 - 2016년 생산량은 1만 7,523톤으로 2011년 대비 약 30.7% 하락했으며, 동년대비 수확면적은 약 18.3% 감소한 598ha를 기록함
- **(주요산지 및 재배품종)** 주요 재배지는 경상남도, 강원도, 전라남도이며 주요 품종은 7가지임
 -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서는 시설재배로 양상추가 재배되며, 강원도에서는 주로 노지재배가 활용됨
 - 국내 양상추 품종으로는 아시아레이크, 샐러드익스프레스, 아비, 아리랑 등이 있으며 겨울 아비, 아비, 아리랑은 1999년부터 보급된 품종임
- **(유통현황)** 주요 유통경로는 생산자 - 산지유통조직 - 도매시장 - 식자재 유통업체 - 외식, 대형유통업체임
 - 양상추의 대량수요처는 외식업체 및 대형유통업체이며 전자상거래와 직거래장터는 소비자 선호도에 비해 유통비중이 낮음
 - 2017년 기준 국내산 양상추의 월평균 도매가는 1,004원/kg, 수입산은 990원/kg을 기록함
- **(소비현황)** 양상추의 공급물량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소비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
 - 2015년 기준, 1인당 양상추 1일 공급량은 0.99g/일로 최고치를 기록한 2010년에 비해 0.31g/일 하락함
 - 과거 양상추가 주로 소비되던 패밀리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의 소비약세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임
- **(수출현황)** 한국산 양상추 수출액과 수출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, 주요 수출국은 대만과 일본임
 - 2017년 양상추 수출액은 2013년 대비 4906% 상승한 165만 2,000달러(한화 약 18억 4,281만 원)를 기록했으며, 수출량은 12900% 증가한 1,430톤을 기록함
 - 한국산 양상추 최대 수출국가는 대만과 일본으로 2017년 수출액 기준 전체의 90% 이상을 차지함
 - 대만 67.2%, 일본 32.7%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, 2017년 對대만 수출은 110만 9,000달러(한화 약 12억 3,764만 원)를 달성했고, 일본으로의 수출은 54만 달러(한화 약 6억 원)를 기록함
- **(수입현황)** 한국의 양상추 수입액과 수입량은 증감추세를 반복하고 있으며, 주요 수입국은 중국과 미국임
 - 2017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30.2% 하락한 797만 1,000달러(한화 약 88억 9,564만 원)를 기록했으며, 수입량은 1만 973톤으로 전년대비 17.8% 하락함
 - 對중국 수입은 전체의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, 미국은 약 14%를 차지함
 - 중국과 미국에서의 수입은 연중 이루어지는 편이나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인 7~9월 주로 이루어짐

□ 일본 양상추 시장동향

- **(재배현황)** 일본의 양상추 생산량 및 수확면적은 201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 - 2016년 기준, 생산량은 58만 6,000톤을 기록하며 2011년 대비 약 8% 상승했으며, 수확면적은 3.8% 증가한 2만 1,600ha를 기록함
- **(주요산지 및 재배품종)** 일본의 양상추 주요 산지는 나가노현(長野県), 이바라키현(茨城県), 군마현(群馬県) 등이며, 3가지의 주요 품종이 있음
 - 2016년 기준 나가노현은 20만 5,800톤의 양상추를 생산하며 일본 전체의 35.1%를 차지했고, 이바라키현이 14.7%, 군마현이 8.6%를 차지함
 - 일본에서는 양상추를 구슬 양상추(玉レタス)라고 부르며 스테디, 트라라, 그란디 등의 품종이 재배되고 있음
- **(유통형태)** 일본 산지출하는 주로 집·출하단체(全農)와 집·출하업체(수집상)에 판매하고 농가의 경우 직매장(노점, 로컬푸드매장)에 판매함
 - 도매시장에서는 경매위주의 거래보다는 상대매매가 주를 이루며, 소매시장은 주로 슈퍼마켓, 대형마트, 쇼핑몰이 활용됨
- **(도매시장 유통현황)** 일본의 주요 도매시장에서 일본산 양상추가 차지하는 비중은 99.6%임
 - 2016년 기준, 주요 도매시장의 총 도매물량은 41만 6,714톤이었으며 그 중 일본산 양상추는 41만 5,236톤을 차지했으며 수입산은 1,478톤을 차지함
 - 연 중 도매물량이 가장 높은 기간은 8월(4만 6,215톤)이며, 도매물량이 가장 낮은 달은 11월(2만 4,092톤)로 나타남
- **(주요 판매처 및 가격)** 슈퍼마켓, 하이퍼마켓, 청과류 판매점, 온라인 등에서 다양한 포장 방법으로 판매되고 있음
 - 온라인 판매의 경우 단품(1개)으로 판매되기도 하며, 10kg의 대용량 판매도 진행 중임
 - 양상추의 크기에 따라 박스에 포장되는 개수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10kg 대용량 포장에는 16~28개의 양상추가 들어감
- **(소비현황)** 소비금액은 2009년 이후 증감추세를 반복하며 상승하고 있음
 - 2016년 기준, 가구당 연간 소비금액은 2,201엔(한화 약 2만 2,275원)을 기록하여, 2009년 대비 34.5% 증가했으나 2015년 대비 1.5% 하락함
- **(소비동향)** 수입산 보다는 일본산 양상추가 소비되고 있으며 산지, 신선도, 안전성, 제품 모양 등이 구매 요인임
 - 수입산이 현지 생산량에 비해 낮은 편이며, 일본산을 강조한 제품, 산지 직송, 냉장 배송 등을 홍보 포인트로 내세운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음
 - 샐러드, 스프, 토스트 재료, 조림 등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나베요리(냄비요리)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
- **(수입동향)** 일본의 양상추 수입액 수입량은 2013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, 주요 수입국은 대만과 미국임
 - 2017년 기준, 수입액은 1,538만 4,000달러(한화 약 171억 6,547만 원)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6년 대비 18.1% 증가한 수치임

- 동년, 수입량은 2016년 대비 14.1% 하락한 1만 2,269톤을 기록
- 수입금액 기준, 對대만 수입이 전체 약 49%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산 수입이 약 45%를 차지하고 있음
 - 대만산 양상추는 주로 겨울에 수입이 높고, 미국산은 연중 수입되나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함
- **(통관제도)** 한국산 양상추의 경우, 일본 내에서 별도의 격리 재배 및 수출국의 재배지 검사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, 일본 내 일반 채소 검사 수준으로 수입이 가능
 - 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엘살바도르, 과테말라, 니카라과, 온두라스,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상추는 수출 전 검사가 필요함
 -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 규칙에 정하는 지정 해충이 검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, 수출국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‘식물 검역 증명서’가 필요
- **(HS코드 및 관세율)** 일본 양상추의 HS코드는 0705.11.000(결구 양상추)이며, 한국산 양상추의 경우 WTO 협정세율 3%가 부가됨